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식을 개발하여 이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교과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이 미 경 (통일교육원 교수)

---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의 26번째로 발간된 이 소책자에서는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집필된 것으로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교과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이 미 경 (통일교육원 교수)



# CONTENTS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교과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I 문제 제기 / 6

## II 청소년 통일의식 분석 / 12

1. 청소년의 특성 / 12
2. 청소년의 통일의식 / 18

## III 현행 학교통일교육 실태 / 26

1. 교과과정 운영 측면 / 26
2. 통일교과 내용 측면 / 35

## IV 청소년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56

1. 긍정적 통일담론 정립 / 57
2.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방안 / 64

## V 맺음말 / 74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 문제 제기

## I. 문제 제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2010년은 의미 있는 한 해이다. 우선 반세기 이상 우리민족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분단의 결정적 계기를 가져온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통일은 관념상의 단어가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로서 인식시켜 준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단 극복과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적 과제이며 이에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비할 때 우리가 원하는 통일미래, 즉 평화롭고 풍요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통일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통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한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분단의 장기화만큼이나 통일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주의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무관심한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97~'10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증가(통일에 대한 관심이 '97년 71% → '10년 57.3%, 통일의 필요성은 '97년 85% → '10년 66.6%)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 인지도는 감소한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북한에 대한 인지도는 '02년 37% → '08년 18%,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 → '08년 27%) 되었다.<sup>1)</sup> 한편 청소년들은 안보의식이 약화됨과 동시에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적 혼란('08.6월 조사에서 6·25전쟁 발발연도를 아는 청소년은 43%,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하였음을 아는 청소년은 49%차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sup>2)</sup>

1) '97~'10년까지 청소년 통일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변화추이와 특성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조사시기	주체	대상	조사제목
'97.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200명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결과
'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200명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결과
'0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400명	중·고교생 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
'03.10~'12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6,297명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0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200명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보고서
'04.9~'12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27,650명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04.12	통일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751명	통일교육에 관한 의견 조사 분석
'05.6	국정홍보처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제주 제외)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07.11	국가청소년위원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6,002명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08.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640명	청소년의 국가관,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08.6	행정안전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016명	청소년 안전·안보의식 실태조사
'08.9	문국현 의원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4,355명	청소년의 대북 및 통일의식 조사보고서
'08.11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2,140명	2008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09.11~'12	통일교육협의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083명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10.11~'12	통일교육협의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439명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2) '10.11~'12 전국 중·고교 재학생 1,439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협의회 조사에서는 76.7%가 6·25발발 시기를 인지

최근 이 같은 청소년들의 통일외식은 약간의 변화를 보여 '10년도 청소년들의 통일외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통일외심도 및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외식은 이전보다 다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sup>3)</sup>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청소년들의 통일외식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훨씬 부정적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의하면 학습의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통일에 무관심하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 설사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해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교과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학생들은 단일민족의 단일국가 형성의 민족사적 당위성, 이산가족의 재결합,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와 이에 따른 국격 고양 등 교과서 내 통일 단원에 명기된 사실들에 충실하게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지닌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는 개념상의 문제이며 통일문제와 그들 각 개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개념상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으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이해하도록 인식시키며, 이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외식을 고양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3) 민주평통 2009년도 청년 통일외식 조사(2009.9.23~9.25,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40세미만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에 의하면 청년층 10명 중 6명 정도(63.2%)가 통일에 대해 관심있다고 응답. 한편 2010.11.13~12.4 통일교육협의회외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일에 관심 있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57.3%,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6%로 나타남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므로 그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어느 정도의 참여의지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청소년들의 의식 구조와 행위양식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지닌 그들의 관심정도와 수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이 지닌 통일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고양을 위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은 주로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의 특징은 이를 통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교육에 있어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와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현행 교과서 통일단원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 청소년 통일의식 분석

## Ⅱ. 청소년 통일의식 분석

### 1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의 관심제고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안 모색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통상 교육을 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이며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는 바로 교육대상이다. 교육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는지의 여부는 교육대상의 특성에 부합되는 주제의 강의를 그들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다. 우선 청소년이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연령대가 무엇인지와 그들이 다른 연령층과 구분되는 특성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가 규명되어야 하는데, 이것 모두 간략히 규정되기가 어렵고 연구자마다 이론의 여지도 있는 문제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은 만 9~24세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이들 연령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사회 속의 다른 세대에 대비되어 소비지향을 지닌 X세대<sup>4)</sup>, 네트워크 지향성의

N세대<sup>5)</sup>, 참여 지향성의 W세대<sup>6)</sup>·R세대<sup>7)</sup> 등의 용어로 불리고 이런 성향들이 청소년층에 내재된 고유한 속성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과 달리 청소년들을 단일한 연령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소속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정치 의식의 측면에서 학교급(초·중·고교·대학교 등), 지역, 가정배경 별로 다양한 분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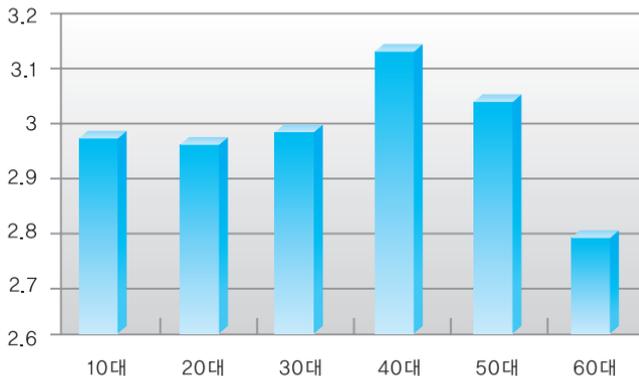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층 내 교급, 지역별, 가정 배경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다른 세대와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존 청소년의 특성을 다른 세대와의 의식구조-의식수준과 가치관, 행동양식 등-비교를 통해 규명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sup>9)</sup>

- 4) 미국에서 1965년 이후 태어난 세대. 91년 나온 더글러스 쿠퍼런드 소설 제목에서 비롯된 말, 자기 주장이 강한 신세대를 이르는 말
- 5)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세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신세대. 자기주장이 뚜렷한 가치관적 특징이 있고,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을 당당히 발언하나, 즉흥적이거나 현실도피적인 면도 있음
- 6) world cup generation.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당시 거리 응원을 주도했던 세대. 이들은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중심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 월드컵 당시 붉은 옷을 입음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리로 나와 자발적으로 응원을 걸음
- 7) 2002년 한·일월드컵 계기로 등장한 붉은 티셔츠와 태극기 패션 등으로 대변되는 세대. R은 붉은 티셔츠의 red를 의미. R세대는 크게 자발적 공동체, 열정적 에너지, 개방적 세계관 등 3가지 특징으로 요약. 기존의 N세대와 달리 개방된 광장에 모여 집단적이지만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음
- 8) 이종원, 김영인, "세대간 의식구조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전망 II-사회·정치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09-R09, 3-4쪽
- 9)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고교생 6,784명, 대학생 1,363명, 일반성인 1,220명을 표본 조사하여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심리사회 의식, 사회정치 의식과 참여, 국가사회 현실인식 등 4개영역으로 구분 조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전망 II-사회·정치 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에 비해 경제적 풍요와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를 살아온 세대로 개인적 흥미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은 강하지만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심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념과 달리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행한 ‘2009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은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에 있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sup>10)</sup>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성인보다 낮지만 격차는 크지 않으며 20, 30대와 유사하고 노년층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1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한편 청소년들은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보도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어 성인들보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고 인터넷의 정보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3)

10) 이종원, “2009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이 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의 의식구조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계표는 위의 연구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이다

표 2 사회·정치문제 보도 접촉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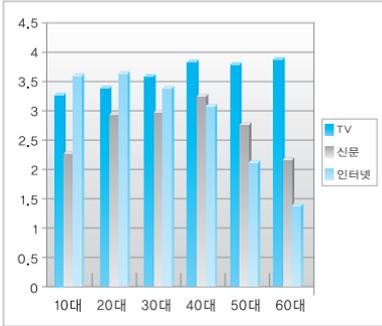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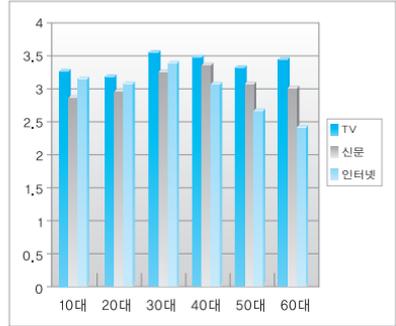


표 3 사회·정치문제 보도에 대한 매체별 신뢰도



또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 참여도가 성인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고생들은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정치 문제 참여율이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서 인터넷이 청소년 사회참여의 주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참여는 학생들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빈부격차, 학력격차, 계층특혜, 배경중시)에 대해 비교적 심각하게 인식, 사회현실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서(고교생이 성인이나 대학생에 비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 성인들에 비해 사회체제를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4,5,6)

표 4 사회·정치문제 참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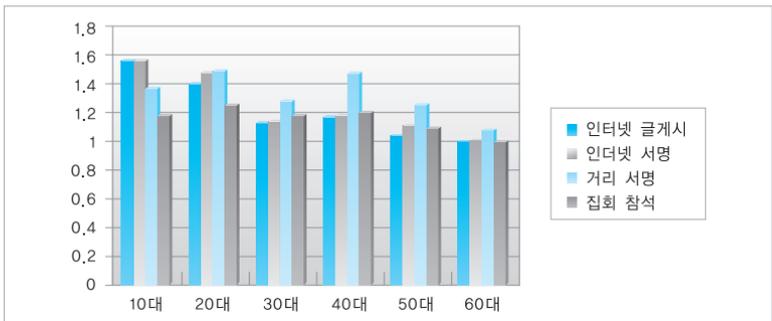


표 5 우리나라의 발전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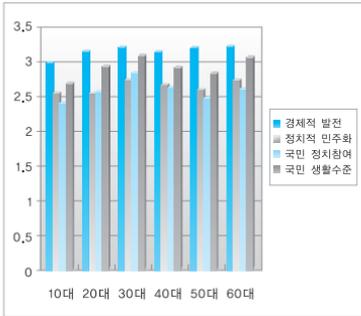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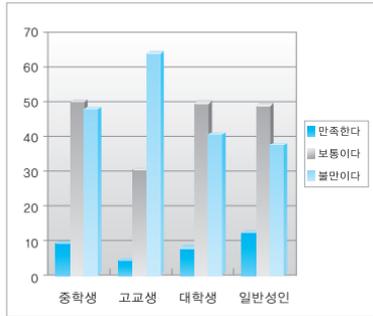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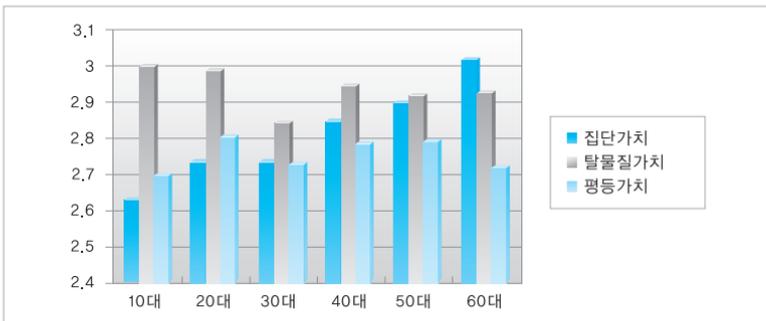


표 6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



물론 청소년들의 이 같은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흥미, 관심,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슈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교하여 개인주의, 탈 물질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치의식에 있어 청소년들은 성인세대에 비해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물질주의보다는 탈 물질주의,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표7)

표 7 정치적 이념성향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을 볼 때 청소년들은 일반적 통념과 달리 그들의 관심분야와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참여에 있어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은 사회·정치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일 뿐 아니라 참여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마련 시 통일문제가 그들의 흥미와 이해관계와의 관련성을 갖는 문제라는 인식을 준다면 이에 대한 관심 표명과 함께 참여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참여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통일교육 시 이를 촉진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정보유입과 의사소통을 위한 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통로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현안이 되고 있는 통일문제 관련 주제를 두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토론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통일·북한 문제와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청소년의 통일인식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97~'10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인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에서 통일의 관심이 '97년 71%→'10년 57.3%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통일의 필요성 인식도 '97년 85%→'10년 66.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표8, 9)

표 8 통일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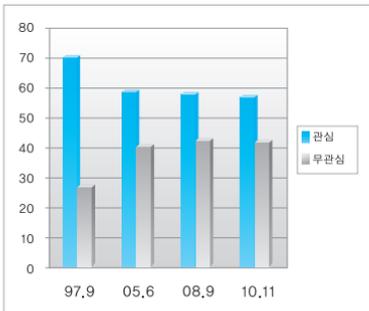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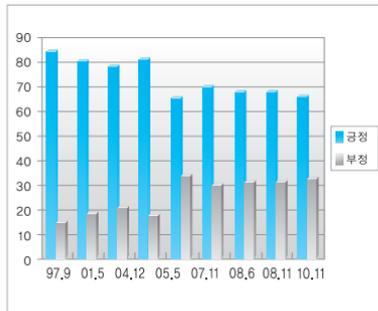


표 9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력강화(29.7%)>이산가족문제 해결(22.7%)>전쟁위험 해소(22.1%)>한민족(21.5%) 등을 들고 있으며, 이밖에도 분단비용 절감, 취업기회 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응답율도 14%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들이 주로 한민족

11) 민주평통 2009년 9.23~9.25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40세미만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청년 통일인식조사'에 의하면 청년층 10명 중 6명 정도(63.2%) 통일에 대해 관심있다고 응답, 최근 2~3년간 통일관심도가 다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07년 57.8%→'08년 59.4%→'09년 63.2%) 통일교육협의회 '10.11.13~12.4 전국 중·고교 재학생 1,43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3%는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66.6%가 필요하다고 응답,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적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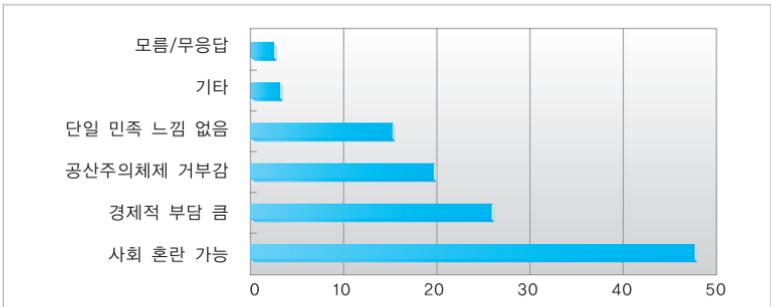
의식, 전쟁위협 해소와 같은 당위성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청소년들은 보다 실질적인 필요성과 이익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표11)<sup>13)</sup>

표 11 통일이 필요한 이유



한편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하여’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25.8%,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20.0%,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서’가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2)

표 12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12) 2010년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다

13) 이 통계표(표 11~12)는 통교협회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2010.12)에서 인용

이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혼란 등에 대해 남북 상호간 이질성, 수준격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는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여 년간('97~'10년)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 인지도는 감소한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북한인지도는 '02년 37%→'08년 18%,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08년 27%) 하였다. '10년 통일교육협회의회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최초의 이미지는 '전쟁·군사' (32.7%), '빈곤' (21.5%)과 같이 부정적(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4.9%,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5.1%)이며, 북한주민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도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호감45.8%, 비호감 54.1%) 이 같은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은 통일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현실적으로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상생공영의 모색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표13, 14)

표 13 북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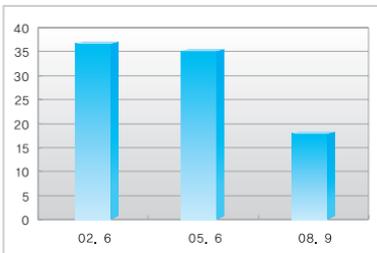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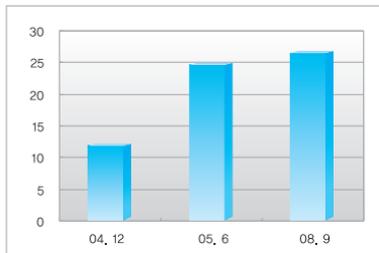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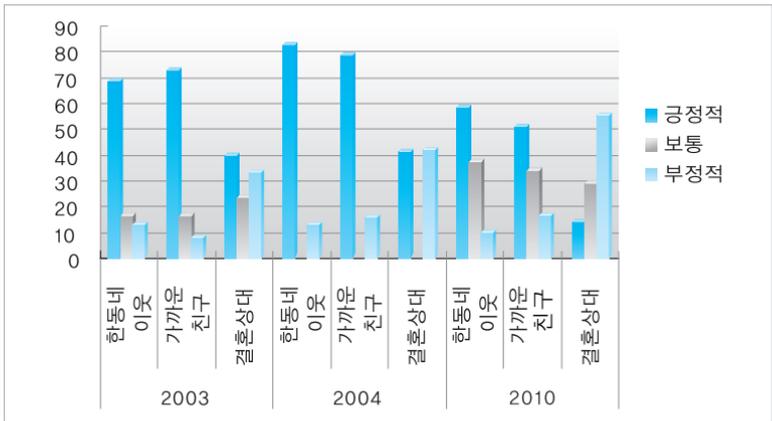


표 14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도는 낮아지고 있다. '10년 통일교육협의회에서 행한 조사에서 한동네 이웃과 친구로서 수용도는 50%를 웃도나 결혼 상대자로서의 수용도는 14.7%로 이전의 조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sup>14)</sup>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가 통일의 과정과 통일이후 사회문화적인 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편입하고 있는 이주민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수용,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공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표15)

표 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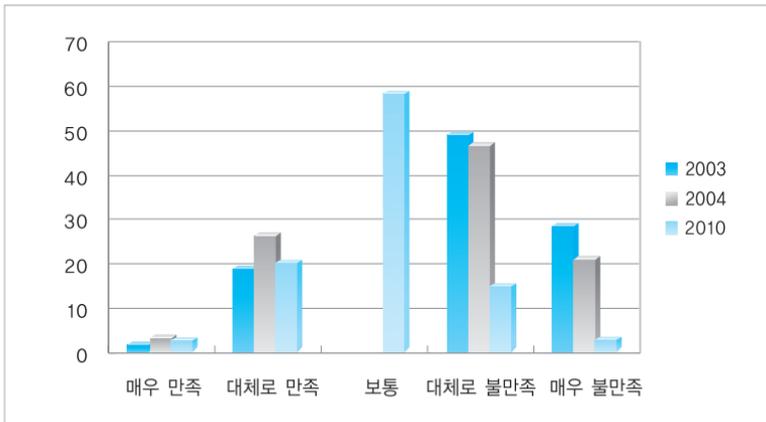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이외에 이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통일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기존 통일

14) '03년 통일연구원과 '04년 민주평통의 조사에서는 한동네, 이웃으로서 수용도는 70~80%, 결혼상대로 40% 수준

교육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다. '10년 통교협'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78.9%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기존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불만족이 '03년 통일연구원, '04년 민주평통 조사에서 각각 78.6%, 69.3%에 비해 '10년 통교협에서 18.1%인 점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16)

표 16 통일교육 만족도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통일교육 교수방법과 내용에 대한 불만족이라 할 수 있다. '04년 민주평통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통일교육이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 교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25.4%)는 것과 함께 수업방식이 지루하다(23.5%) 등으로 응답한 점은 현행 통일교육 교수방법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 강의(51.9%)·시청각(33.1%)·현장학습(2.5%) 순이었다는데서 입증된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었던 통일교육으로 DVD, VOD 등 시청각 교육('04년

52.4%→10년 56.4%)을 들고 있고 향후 통일교육 시 알고 싶은 내용으로 북한 청소년, 주민생활 등 북한 실상이라는 응답(04년 28.8%→10년 32.6%)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된 국가의 미래라는 응답(04년 28.0%→10년 27.9%)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서<sup>15)</sup> 향후 통일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언론매체 66%) 인터넷 16.6%) 학교수업과 교과서 5.2%)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언론매체,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 같은 사실은 향후 통일교육의 주요 통로로서 이들 매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통일·북한관련 정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인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이 형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5) '10년의 통계수치는 통일교육협회의 '2010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임

16) 이 같은 사실은 '09.9월 민주평통 '청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문국현 의원실에서 '08.9월 전국 초·중·고생 4,355명 대상의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62%가 통일, 북한관련 정보획득 통로로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2010년 통일교육협회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68.2%가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정보취득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보통신매체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 현행 학교통일교육 실태

## Ⅲ. 현행 학교통일교육 실태

### 1 교과과정 운영 측면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은 대부분 학교 교과수업을 통해 통일 및 북한 관련 내용을 교육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전 교과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윤리과목 등 특정교과에 치중되어 있으며, 통일교육 시간도 연 평균 약 6.5시간이다.<sup>17)</sup> 그러나 교과 내 통일교육의 시수는 '09년 12월 학교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정책추진 일환으로 '미래형 교과과정'이 확정됨('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준비된 학교는 '10년부터 적용 가능)에 따라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8)</sup>

지난 2009년 12월 23일 초·중등 교육과정이 새롭게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현장의 탄력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3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 군으로 묶고 성격이 유사한 교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 기준 이수단위를 제시한 교과군과 학년군, 집중

17) 이 수치는 '08년 조사결과이고 '09년 16개 시도 교육청 집계에 의하면 실제 교육시간은 학년 당 평균 초등학교 5.4시간, 중학교는 4.7시간, 고등학교는 5.7시간임

18)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단축(현행 10년에서 9년으로)되고 학년 군 도입으로 인해 도덕 등 기존 고교 1학년 공통 필수과목들이 선택과정으로 전환, 향후 각급 학교에서 국·영·수 등 입시과목 교육을 위해 도덕·사회를 중1·고1에 집중 이수 및 20% 감축 운영할 경우 동 교과 내 통일교육이 더욱 축소 우려, 특히 기존 고교 1학년 필수과목이던 도덕이 사회교과군 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수제 등을 도입하고 공통교육 과정과 선택교육 과정을 재설정하는<sup>19)</sup> 한편 학교에 교과(군) 별 수업시수 20% 증감을 허용하여 교과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20)</sup> 즉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가 축소되고 블록타임제<sup>21)</sup> 등을 활용하여 교과교육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써 학습 부담이 경감되어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해져 최적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2)</sup>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 별 주요 개정 내용을 도표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등으로 기존의 10개 교과를 7개의 교과(군)으로 재분류하였다. 단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들은 1학년’을

19) 이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학제와 의무교육기간에 일치시키면서 명칭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바꿔 공통 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과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선택 교과과정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과정을 두어 개인의 진로·진학에 적합한 집중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교과영역을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4개로 구분 짓고 필수 이수단위를 정해주어 기초핵심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현행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2개 영역(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5개영역(자치, 적응, 봉사, 개발, 행사)을 통합한 개념으로 세부영역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설정하고 그 운영시간도 초·중학교에서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늘렸다

21) 블록타임제(Block-time)운영의 예는 미술수업이 주당 1~2시간인 경우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기 어려우므로 집중이수제를 통해 3~4시간 연속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생 작품 완성과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22) 서울시교육청, ‘2009개정 교육과정 이해 및 적용방안- 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연수자료- ; 교육과학 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참조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로써 6개년 총 이수시수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학년군 및 교과군으로 '기준 수업시수' 를 제시하였다.(표 17)<sup>23)</sup>

표 17 초등학교 편제와 시간배당기준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 군)	국어	국 어 448 수 학 256 바른 생활 128 슬기로운 생활 192 즐거운 생활 384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272	272
	과학/실과		204	340
	체육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중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 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과목) 등 교과군 8개를 설정하고 시간배당은 학년군, 교과군으로 기준 수업시수를 제시하였다. (표 18)<sup>24)</sup>

23)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 이 표는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자료에서 재인용한 것임)

24)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학년군 및 교과군 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시간 수를 나타낸 것( 이 표는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자료에서 재인용)

표 18 중학교 편제와 시간배당기준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 어	442 (354~530)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408~612)
	수 학	374 (300~448)
	과학/기술·가정	646 (517~775)
	체육	272 (218~326)
	예술(음악/미술)	272 (218~326)
	영어	340 (272~408)
	선택	204 164~24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시간 수		3,366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영역 4개로 설정, 기초(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과학), 체육·예술(체육, 음악미술), 생활·교양(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구분하고 교과(군)은 국어, 수학, 사회(역사/도덕), 영어,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 2외국어/한문/교양 등 8개로 재분류하였다.(표 19)<sup>25)</sup>

25) 표에서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임.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필수 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영역의 최소 이수단위임.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예체능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이수단위(이 표는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자료에서 재인용)

표 19 고등학교 편제와 시간배당기준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자율 과정	
			교과(군)	교과(군)		
교 과 (군)	기초	국어	15(10)	45(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10)	35(20)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20(10)		
		예술 (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12)	16(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그러나 이와 같은 '09년 미래형의 교과과정이 과연 교과부의 설명처럼 모든 교과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특히 도덕 교육과 같은 기본 교과인 경우 집중이수로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의 문제와 함께 기존 고교 1학년 필수과목이던 도덕이 사회교과군 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에서 시간 축소 혹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공동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의 재설정, 집중 이수제를 통한 교과목의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학생의 진로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시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여건에서 기본교과 즉 영어, 수학, 국어와 같은 입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되는 과목의

비중이 증가할 우려가 많으며 이 같은 우려는 실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sup>26)</sup>

특히 통일교육과 관련 2009 개정교과의 특징은 집중 이수제를 통한 범교과적 학습으로 전 교과에서 통일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가르쳐야 하며<sup>27)</sup>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교과 외 활동에서도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교과부의 설명에 의하면 도덕교육 및 인성교육은 특정교과에서 가르치기보다 모든 교과를 통해 지도해야 할 학습요소 이므로 집중이수를 통해 “도덕교육, 인성교육, 정서함양 등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sup>28)</sup> 그러나 범교과 학습의 영역은 기본 35개(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통일교육 등)에 녹색교육, 한자교육, 한국문화사교육 추가(총 38개)로 범위가 너무 다양하여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우려가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중·고등 과정의 도덕교과에서 통일교육의 축소는 이미 2007 개정 교과과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개정 이전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통일부분이 다뤄져왔으나 2007 개정 교과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주로 다뤄져 교과를 통한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은 중학교 2학년이 유일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개정 교과의

26) “일선 중학교에서 영어와 수학 수업시간을 늘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국 중학교 11개 가운데 7학교는 영어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10개 중 6개는 수학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9.6 자 노컷뉴스

27) 예컨대 국어과에서는 북한의 언어와 문학특성 / 국사과에서는 남북한의 역사관, 남북한의 역사서술 / 일반 사회과에서는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비교 / 지리과에서는 북한지역의 위치적 특징, 북한의 자연, 기후, 생활방식, 풍습 / 미술과에서는 북한미술의 형태와 특성 및 창작기법 / 음악과에서는 북한음악의 이념적 기초와 창작기법, 남북한 음악의 장단점

28) 집중 이수제는 학교가 인성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교과의 수업시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토론, 작품 활동, 실험실습 등과 같이 다양하고 깊이 있으며, 재미있는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관련 내용이 대폭 감소되었다. 기존의 도덕 교과서에서 통일은 ‘통일 문제와 통일한국의 모습’이란 주제로 91쪽에 걸쳐 상세히 다뤄졌으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4~8쪽으로 ‘한민족공동체방안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같은 교과서 내 통일 관련 내용의 감소는 기존 1학기 17시간 정도로 이뤄졌던 통일교육을 1~2시간으로 축소할 수 있다.(표 20~21)<sup>29)</sup>

표 20 개정 전 7차 교육과정 도덕교과 통일교육 관련 단원

학교급 학년	예상 수업 시수	단원명	하위내용 요소
중학교 2학년	7	남북통일과 통일실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의의</li> <li>•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li> <li>• 통일을 위한 노력</li> <li>•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li> </ul>
고등학교 1학년	17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분단의 과정</li> <li>•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비교</li> </ul>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li> <li>•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li> <li>•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li> </ul>
		민족공동체의 변명과 통일 한국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공동체의 당면과제와 해결</li> <li>• 통일한국의 미래상</li> <li>•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 상</li> </ul>

29) 이 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년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에서 발제된 다음의 글에서 재인용한 것임.  
이부흥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년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표 21 2007 개정 교육과정 도덕교과 통일교육 관련 단원

학교급 학년	예상 수업 시수	단원명	하위내용 요소
중학교 2학년	17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공동체와 남북분단의 배경</li> <li>• 이산가족 등 남북분단으로 인한 우리민족의 아픔</li> <li>• 우리민족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li> </ul>
		북한주민과 민족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li> <li>• 보편적인 인권차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li> <li>• 민족정체성과 민족공동체의 의미</li> </ul>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동질성 확대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li> <li>• 우리정부의 통일 노력</li> <li>• 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li> <li>• 통일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통일한국의 미래상</li> </ul>

이 같은 학교 교과과정 내 통일교육의 교과목 편성 및 시수 부족에 따라 통일교육이 약화되는 문제는 교과과정이 입시위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 현행 학교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 관련 교과는 입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어·수학과 같은 소위 주요 과목에 비해 비중이 적은 교과로 간주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또한 통일교과는 실제 수능과 같은 입시에서 통일관련 문항 출제빈도가 낮아 학습동기가 낮을 뿐 아니라 교과서 내 통일관련 내용이 대부분 마지막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이 생략되거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07년 개정 교과서에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행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에서 영어·수학·과학 등의 과목에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열의와 의욕을 갖기가 어렵다. 또한 일부에서 통일교육은 편향적인 이념교육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 교사들의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통일교육은 시행·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09년 미래형 교과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범교과 학습 속에 통일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예컨대 현행 입시과정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학입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의 비중이 보다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과 통일문제 관련 주제의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을 창안함으로써 관심에 부합하는 이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행 교과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결과가 상급학교 진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 통일교과 내용 측면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교과라는 점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통일교육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만족보다는 보통과 불만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up>30)</sup> 이런 현상은 현행 교과 내 통일교육이 대체로 학생들의 흥미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추상적·거대 담론 위주로 서술된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 참여가 배제된 강의식·주입식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들이 통일 및 북한정보 획득의 주요 경로 가운데 하나인 교과서의 통일담론은 주로 단일민족의 재결합을 강조하는 민족사적 당위성 논리와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논리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요소 제거, 내수시장의 확대, 경제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하는 공공재적 차원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일 담론만으로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실리위주의 사고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다분히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한민족이라는 민족사적 당위성보다는 국력강화와 분단비용 경감과 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통일의 이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sup>31)</sup> 따라서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제고를 위해

30) '04년 민주평통 조사 결과 만족이 30.7% 불만족 69.3%, '10년 통일교육협의회 조사결과, 만족이 23.6%, 보통이 57.9%로 나타남

31) '10년 통일교육협의회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국력강화 29.7%, 한민족 21.5% 으로 나타남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관심과 수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발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학교통일교육의 전담 교과인 도덕교과서 내 통일단원의 내용 분석을 통해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존 학교통일교육은 주로 도덕교과에서 다루어져 왔다. 제 7차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3·4·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선택 과목(시민윤리, 윤리와 사상)과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에 ‘학습지’ 또는 ‘함께하기’ 형식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향후 사용될 '07년 개정교과의 교과서 내용을 초·중·고교 별로 고찰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부합 여부와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바람직한 청소년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청소년들의 수준과 관심 등을 충족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뤄져 통일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을 기초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통일교육은 분단극복을 넘어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과 화해협력과 안보태세 강화를 병행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인 존재로서의 북한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균형 있는 북한관'과 '건전한 안보관'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32)</sup> 실제 교과서 내 통일단원의 내용이 이 같은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교육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수준과 관심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 1) 초등 교과 내용 분석 :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과 비교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3~6학년에서 각각 주당 1시간으로 배정된 도덕시간에 4가지 영역(개인생활/가정·이웃·학교생활/사회생활/국가민족생활) 가운데 국가민족생활 영역의 일부(4영역의 1/2 또는 2/3차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은(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단인식과 북한이해, 평화통일의 필요성 및 중요성 그리고 국가안보이다.

32)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지침서」 2010. 참조

표 22 제 7차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구성

영역내용 학년	국가·민족 생활	구체적 재제명
3학년	[5단원 우리의 소원]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분단의 현실과 원인</li> <li>2.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li> <li>3.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li> <li>4.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li> </ol>
4학년	[5단원 우리나라 우리조국]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li> <li>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li> <li>3.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국가발전과의 관계</li> <li>4. 일상생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li> </ol>
5학년	[9단원 한마음으로 평화통일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화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하는 이유</li> <li>2. 평화통일을 이룬 사례와 교훈</li> <li>3.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적절한 방법들</li> <li>4. 일상생활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li> </ol>
6학년	[8단원 평화통일의 길]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통일의 의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 조국 미래의 모습</li> <li>2. 우리의 통일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li> <li>3. 통일을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li> <li>4.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실천 방안</li> </ol>

이상 7차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통일단원 내용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핵심 내용은 분단현실 이해, 북한이해, 평화통일 인식, 평화 통일을 위한 초등학생의 역할 등이다. 이 같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에는 크게 대치되지 않으나 초등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거대담론 위주의 통일논리를 당위적인 과제로 수용도록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은 민족사적 과제이며 북한을 진정한 동포로서 인식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혹은 북한주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와 함께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서의 내용은 기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서 볼 때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통일단원의 교과내용에 공감하려면 초등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부합하는 논리로 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적인 설명방식이 요구된다.

초등 5학년 도덕 교과서의 통일단원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전쟁으로 통일된 베트남과 평화적으로 이뤄진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보다는,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평화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자’는 주제의 글에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하는 글을 소개하는 것에 머물고 있어 북한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이것이 평화통일 실현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 실린 ‘우리는 본디 하나’라는 시의 내용도 학생들의 의식수준과 무관하게 북한을 민족공동체를 이뤄야 하는 존재로서 수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 내용 속에는 북한은 ‘동일민족’, ‘동일역사’, ‘동일언어’ 등을 가진 동포이므로 그들과의 민족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계화시대 단일민족의 단일국가 형성의 정당성 논리만으로 민족공동체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의 객관적인 요소만으로는 북한이 분단현실 속에 안보위협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상생공영을 모색하는 존재라는 것과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통일단원의 교과내용에는 초등학생의 지적수준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 ‘선택활동’으로 제시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마을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설계하면 좋을까요?’라는 것과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신문기자가 되어 북한지역의 생활모습을 취재하여 발표해 봅시다’ 라는 문제들은 모두 사전에 이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갖추어졌을 때 해결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초등학생들이 비무장지대에 평화마을 건설에 대한 구상을 하려면 비무장지대의 특성과 이곳에 평화 마을 건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한편 통일 후 기자로서 북한지역의 생활모습을 취재해 보자는 활동은 통일문제를 학생들 개인 수준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 활동은 사전에 북한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 지역의 특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통일단원의 교과서 내용은 보다 명료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기도 하다. 예컨대 6학년 도덕 교과서에 실린 ‘언어차이’로 인한 상황 묘사 등은 분단 남북한의 이질화 심화라는 현실만 강조하여 학생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어차이로 인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교과내용에서 이런 상황은 분단이 장기화된 남북한에서 불가피하나 상호 이해 속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분명한 의미전달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행 7차 교육과정의 통일단원의 교과내용은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의식수준과 관심사항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고 체계적인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초등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07년 개정 교과

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통일단원의 내용은 2학년은 통일을 향해서, 3학년은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4학년은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5학년은 북한동포 및 새터민의 삶, 6학년은 편견극복과 관용,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화로운 세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구성

영역내용 학년	나라 · 민족 ·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2학년 (바른생활2-2)	• “나라 사랑하기” 라는 대 주제 아래 “통일에 대하여 관심 갖기”
4학년	• 나라의 상징과 나라사랑 •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5학년	• 우리 나라 · 민족에 대한 긍지 •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6학년	• 편견 극복과 관용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 평화로운 세상

’07년 개정교과 내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의 내용은 ‘통일을 향해서’ 라는 대주제 아래 같은 민족(북한)으로서의 정체성 확인, 북한 어린이의 생활, 통일의 필요성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3학년 도덕은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어요’ 라는 주제 아래 분단배경과 민족의 아픔에 대한 소개를 통해 화해협력의 필요성과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학년 도덕은 ‘하나 된 나라 평화로운 세상’ 의 제목 아래 통일을 이뤄야 하는 이유, 방법,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판단, 통일을 위해 할 일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 개정교과 내용은 이전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할 때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 편성 등 변화되고 있는 통일환경을 일부 반영하여 북한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의 삶, 편견 극복과 상호 이해, 관용 등을 강조함으로써 통일문제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덧붙여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국가적·민족적 측면을 언급하는 외에 개인적 이해관계와의 연계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면 학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더욱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2) 중·고등 교과 내용 분석 :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과 비교

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은 도덕, 사회과를 중심으로 국어과, 음악과, 미술과 등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중2 도덕과, 고1 도덕과의 통일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 도덕 교과서의 통일단원의 주요 내용은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정책, 통일환경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25)<sup>33)</sup>

33) 이 표의 작성은 2008 통일교육발전 토론회에서 발표된 박찬석,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것을 재인용. (박찬석,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통일교육발전 토론회」)

표 24 중학교 도덕 교과 내용구성

대 단 원	중 단 원	소단원	재제명	내 용
Ⅱ. 바람직한 국가민족생활	4. 남북통일과 통일실현의 지	(1) 통일의의	통일의 의미	마음의 통일
			통일의 필요성	민족사적, 평화적, 인도주의적,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묘사
			통일로 가는 길	화해협력 속에 평화와 발전 추구
		(2)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북한 주민의 정치생활	헌법, 노동당 등의 정치조직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계획경제의 내용과 북한경제 실상 소개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입장에서 조직생활 소개
			북한 주민의 교육 및 문화생활	남북한 교육제도 비교(교과목, 시험, 진학 등)와 북한주민의 최근 자본주의적 문화생활 향유 과정 소개
		(3) 통일을 위한 노력	신라와 고려의 사례와 교훈	신라와 고려의 통일과정을 통해 우리의 통일노력 확인
			외국의 통일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합과정과 통합 이후 노력 설명
			남북대화 실천사례	53년 이후 대화사례, 6·15 이후의 모습소개
		(4)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적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필요
			평화와 화해 그리고 안보	한반도 평화 위해 내부의 안정과 발전, 안보능력, 정치경제의 민주화, 남북간 이해가 필요함을 설명
			통일을 위해 중학생이 해야 할 일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평화 및 화해의 실천 필요 강조

표 25 고등학교 도덕 교과 내용 구성

대 단 원	중단원	소단원	내 용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1.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현실	민족분단의 과정	분단현실, 분단원인과 과정, 분단의 고착화 과정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의 비교	남북한의 언어, 남북한 생활문화, 남북한의 규범 및 가치
		민족분단의 극복방향	분단극복의 필요성, 분단극복의 장애요인, 분단극복의 기본방향
	2.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정책, 남북한의 통일환경 조성과 남북관계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우리의 통일정책, 북한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통일의지와 통일대비 자세, 평화통일을 위해 나가야 할 길, 통일을 위해 고등학생이 할 일
	3.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통일한국의 모습	민족공동체의 당면과제와 해결	한민족공동체의 의미와 세계화 과정, 민족공동체의 당면과제, 민족공동체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한국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통일한국이 나갈 방향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상, 21세기 국제사회, 통일한국의 위상과 역할, 미래 새한국인이 되기 위한 노력

이 같은 내용들은 중·고등학생들의 의식수준과 관심분야가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 결과 이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공감대 형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통일단원의 내용도 당위적이고 추상적이며 거대담론 위주로 서술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통일단원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통일의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의식수준과 관심 속에 어떤 의미로 수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통일이라는 과제는 어떤 계기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통일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남북한 사이의 교류나 이산가족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이전보다 많이 가지게 되었다. .. 북한주민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중2 도덕 교과서 257-258) 등이다. 또한 “통일은 남북한 동포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가는 과정,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작업 즉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의미규정을 하고 있다.(중2 도덕 교과서 260-264)

이 같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논리는 실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중·고등학생들의 의식수준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며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논리만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는 통일이 국가와 민족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 각 개인의 실리와도 관련성을 지닌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의 통일논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통일의 부정적인 인식을 공고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3 사회 교과서의 '심화과정' 란에는 '남과 북,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라는 제목 아래 남북한 언어와 풍습 등 차이와 이로 인해 통합 후 발생 가능한 갈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서술된 내용만으로는 남북 간 이질화를 상호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질화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 통일을 앞당겨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교과서에서는 남북간 차이만 소개할 뿐 이에 대한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 대한 방안 모색은 학생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한 차이로 통일과정과 통일 후 발생 될 사회혼란을 통일의 불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재확인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내 통일단원에서는 중학교에서 깊게 다뤄지지 않은 통일환경, 남북관계 현안 등 약간의 논쟁적인 과제들을 서술하고 있으나,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지적·의식적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한반도 통일은 남북관계만이 아닌 주변국의 협력 속에 실현될 수 있는 과제라는 전제 아래 “앞으로의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 동시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고도덕137), “남북한의 변화된 통일환경 하에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할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주변국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고도덕139) 등의 제시된 문제들은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학생수준에서 해결하기 힘든 과제로 보여진다.

또한 교과서의 ‘함께하기’라는란에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가치 판단하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여부와 각각의 근거가 무엇인지”라는 질문 등은 정해진 교과시간 내 학생들 지적 수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렵고 매우 논쟁적인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흥미감소는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사고와 가치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내 통일단원의 내용은 이 같은 논쟁적인 주제보다는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수준에 부합되며 올바른 통일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은 도덕과 이외 근현대사에서도 행해지고 있는데 근현대사 교과서의 통일단원의 내용구성도 도덕과와 유사하게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의 과제’라는 제목 아래 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환경, 평화통일의 과제(교류협력의 중요성 강조)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서술된 내용들은 충분한 논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부정적인 통일

인식을 공고화시킬 소지가 있어, 학생들의 수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재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통일단원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일부 반영되어 통일문제를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자발적 탐구와 성찰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어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부응, 세계화 시대 민족정체성 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등이 다루어져 있다. (표 26)

표 26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구성

영역내용(학년)	8학년(중2)	10학년(고1)
나라 · 민족 ·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Ⅲ. 통일과 민족공동체 윤리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주민과 민족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분단극복의 필요성, 분단극복의 장애요인, 분단극복의 기본방향

개정교과 내용의 특징은 중학교의 경우는 소단원의 수도 대폭 늘어나고 기존 교과서의 [함께하기]와 비슷한 활동들이 각 단원마다 배치되는 등 전반적으로 분량이 증대되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대폭 축소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해볼 때, 개정 교과서의 내용은 북한 주민생활과 학교생활 등 학생들이 북한문제에 대해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 · 다문화 사회 편성 등 변화된 통일환경에서의 민족정체성 확립 문제를 다루는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

문제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다. 개정 이전의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환경 변화와 학생들의 수준, 관심 등이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일논리의 개발, 구성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 교과서 내 통일논리는 학생들이 통일문제를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관련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고 있고 그들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부정적인 통일인식 극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 교과 중학교 도덕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의 주요 내용은 통일 후 예상되는 통일비용, 혼란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북한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서로 노력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서술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존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과 편익 등 통일 후 예상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인 파급효과와 함께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큰 통일편익의 발생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과제 등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미래미전에 대한 구상에서는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 복지국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 등 거대 담론 위주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학생 개인차원의 삶을 투영시켜 구체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교과 중학교 도덕의 통일단원의 내용에는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문제' 부분 가운데 '탐구공동체활동'으로 제시된 과제들 - "남북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와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근 기사를 찾아보자” - 은 한반도 문제의 특성과 함께 주변 국가의 역학관계와 권력지형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중학생의 학습 수준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즉 지정학적·역사적 측면의 통일문제는 한반도 주변국가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학구도에서 이들의 우호적인 협력 속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향후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 등의 설명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또한 ‘북한주민과 민족애’ 부분의 ‘모듬활동’에서 “북한의 변화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모듬 별로 북한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런 변화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라는 과제와 ‘탐구공동체 활동’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탈북을 돕는 것은 옳은가?”에 대한 찬반입장을 요구하는 과제 등은 중학생 수준에서 어렵다고 본다. 또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는 문제이다. 예컨대 북한의 변화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전의 북한체제의 특성에 관한 충분한 인지 속에 북한의 변화현상이 북한체제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이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으로, 이에 대한 실상과 해결과제 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유도가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도 체계적이고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학생

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전 통일단원의 교과 내용은 분단에서 통일 미래비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의 문제들 즉 통일의 필요성, 통일 준비 과제, 통일노력(통일정책), 통일 미래비전, 북한 이해 부분을 주로 다뤘으나, 새로운 교과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생략된 채 ‘세계화시대 민족주의’, ‘민족정체성 확립문제’, ‘민족통합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 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에 대한 설명 없이 당위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 6·25 음식 체험하기

전라북도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  남원한빛중학교

주먹밥  
국수장국  
매추김치





# IV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 청소년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IV. 청소년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지금까지 현행 청소년 통일교육의 실태를 학교통일교육을 중심으로 교과운영 측면과 내용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현행 학교통일 교육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입시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교과과정 속에 통일교육 시간의 부족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부족으로 교사들과 학생 모두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청소년 통일교육의 주요 매체인 교과서의 통일단원의 내용들은 학생들의 의식수준과 관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측정하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며 기존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결과로도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청소년들이 지닌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학교통일교육의 전담교과인 도덕과의 통일단원의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긍정적 통일담론 정립

일반적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부담과 사회적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통일의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회혼란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어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통일 인식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부정적인 통일담론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론은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통일이 달성되기까지 천문학적 비용부담과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과급효과가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더구나 남북한의 현실은 동서독의 경우보다 소득 격차는 더 크고, 경제력도 더 약하므로 통일과정에서 훨씬 많은 혼란과 비용을 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현재 향유되고 있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통일담론을 대체할 긍정적인 통일담론, 즉 통일의 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은 과도기적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정립돼야 한다.

## 1) 부정적인 통일인식 재검토

통일의 비용부담, 사회불안 등 기존의 부정적인 통일담론은 실제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다.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은 ‘평화’, ‘회합’의 이미지와 함께 ‘비용’, ‘혼란’ 등을 연상시킨다.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될 비용과 사회혼란을 떠올리는 통일인식은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연유되고 있다.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통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문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통일의 결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현실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은 독일국민들의 자유의 확산, 유럽통합의 기폭제, 경제대국으로의 위상확보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오랜 시기 사회문화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통독 20주년을 맞아 독일통일의 재평가가 이뤄져 통일은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유’, ‘평화’의 향유이며, 통일 20년 후의 독일은 국제경쟁력을 지닌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독일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균형 있는 재평가가 통일교육에 새롭게 반영되어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통일비용 논의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인식되고 있다. 우선 통일비용에서 통일로 연계 되는 편익을 차감한 순비용(net-cost)으로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비용이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즉 기존의 통일논의에는 통일이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도 발생시킨다는 고려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통일비용	통일편익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li> <li>• 총통일비용에서 통일편익을 차감한 순통일비용(net cost)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다양한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편익 : 분단지출비용 해소, 규모의 경제 실현, 산업 및 생산 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li> <li>- 비경제적 편익 :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전쟁위험의 해소 등</li> </ul> </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격차가 특정수준으로 줄어드는 시점까지만 발생</li> <li>•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의 성격</li> <li>•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속적으로 조절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이후 지속적으로 영구히 발생</li> <li>• 후대가 아닌 당대에서 발생 가능</li> <li>•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큼</li> </ul>

예컨대 통일은 분단지출비용 해소, 남북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편익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전쟁위험의 해소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편익을 가져온다. 또한 통일비용 지출은 북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남한지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증대로 연결된다. 북한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북한 지역에서의 세입증대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증대시켜 남한지역의 통일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sup>34)</sup>

34)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2010.4 글 참조

이런 점에서 통일비용은 통일편익을 가져오고 통일은 통념과 달리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통일비용은 통일이시점에서의 남북한 격차를 통일이후 일정 수준 이내까지 좁히는 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만 통일편익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영구히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일비용 논의에서는 조달방식의 신축성이 무시되어 왔다.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 통일의 방식과 수준 등 통일비용 산출과 관련한 기본가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언제, 어느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지는지 또는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따라 통일비용은 수 백 억 달러에서 수 천 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방식과 수준에 따라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항목을 동시에 부담하지 않고 부분적, 단계적으로 부담해도 되므로 통일비용은 우리의 경제능력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 가능한 액수라 할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기존의 통일비용론은 통일비용이 통일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나 우리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통제 가능한 부담이라는 것과 함께 한시적인 통일비용에 비해 장기적인 통일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올바른 논의로 대체돼야 한다.

---

35) 조동호의 앞의 글 참조

## 2) 인식전환을 위한 통일논리 재구성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극복하고 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이 비용보다 훨씬 큰 편익을 발생한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 혹은 지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주의적이고 실리 위주의 사고를 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통일문제가 국가와 사회 이익만이 아닌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될 것이므로, 통일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편익의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교과서에서 자주 제시되고 있는 통일의 편익 가운데 하나인 '남북간 철도 연결을 통한 혜택'에 관한 기존의 논리를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육지를 통한 대륙으로 진출이 가능해져 물류기지의 중심이 되고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저렴하게 철도로 유럽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구체적인 수치 혹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 통일논리의 재구성 예시 1

### 남북 간 철도 연결을 통한 혜택

- 육지를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이 가능
  - 물류기지의 중심화
  -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
- 유럽까지 물자 운송의 시간과 비용 절감
  - 부산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해로 운송과 비교 시 34일→21일, 30~40%의 비용 절감
  -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여행 가능

“통일로 남북한 종단철도(경의선, 경원선)와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연결될 경우 부산에서 독일의 베를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해운수송과 비교할 때 운송기간이 현재 약 34일이 걸리던 것이 21일로 10일 가량 단축되고 운송비용도 30~40% 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는 등의 구체적인 통일의 편익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통일로 인해 예상되는 편익 가운데 하나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다는 기존의 추상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익을 제시함으로써 공감대를 높이는 통일의 필요성 논리로 재구성될 수 있다.

“통일로 남북한 인구가 합쳐져 큰 시장이 형성될 경우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증가로 기업은 활성화되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동시에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 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익은 취업이 당면 목표인 청소년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 통일논리의 재구성 예시 2

#### 규모의 경제 효과

- 인구 규모의 확대로 큰 시장 형성 및 내수 활성화
  -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증가
  - 일자리 창출로 취업 기회 확대, 실업 문제 해소
  - 기업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

청소년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 있는 통일문제의 사례로 제시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방비 지출과 병력규모 축소로 발생될 편익의 향유이다. 국방인력 축소는 남학생들에게 민감한 군 입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통일로 인한 현재의 군 병력의 축소는 재원을 절감할 뿐 아니라 기존 징병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통일시 남한 65만 명, 북한 119만 명이나 되는 수의 군인들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직업군인제가 확대되어 희망자만 군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감축된 군 병력이 산업인력으로 투입되거나 절감된 비용이 사회·경제 건설로 전환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18여만 명의 병력을 30~40만 명으로 축소할 경우 서울과 신의주 고속도로를 연간 5개를 건설할 수 있다 등의 구체적인 실익으로 제시될 수 있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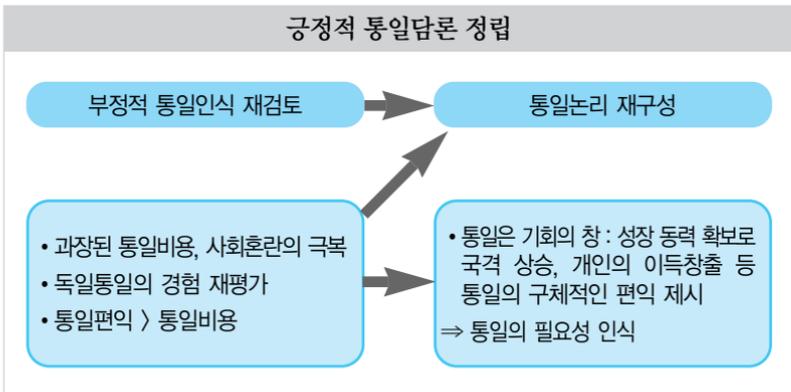
또한 분단에서 통일로 전환 시 발생하는 편익들은 가능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실례들을 제시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일논리의 재구성 예시 3	국방비와 병력규모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축된 군 병력이 산업인력으로 투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북의 180여만 명의 병력을 30~40만 명으로 축소시 150여만 명의 산업인력 창출</li> </ul> </li> <li>• 병력 축소로 절감된 국방비를 교육 및 경제 건설에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와 급식비 면제 및 교육시설 확충 가능</li> <li>· 병력 30~40만 명으로 축소 시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연간 5개 건설 가능</li> </ul> </li> </ul>	

36) 연합뉴스 2000년 5월 4일자 참조

예컨대 분단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은 정부 총예산규모의 10% 수준 (2010년도 정부 총예산 292.8조원 중 국방비는 29.6조원, 2011년 정부 총예산 309.6조원 중 국방비는 31.2조원), 국내총생산의 약 3%선이나, 통일로 지출규모가 축소된다면 이 돈의 일부가 학생복지 비용으로 전환 되어 수업료와 급식비 면제, 교육시설 확충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서술된 통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담론의 정립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방안

통일미래 세대로서 청소년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위주의 사고를 하는 청소년 들은 국가적인 문제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크다. 따라서 그들이

흥미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일정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발이 요청된다.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통일문제가 국가·사회의 이익만이 아닌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은 통일문제가 청소년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참여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교육방식의 채택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싶다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북한 실상, 통일 필요성, 통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교육방식(DVD·VOD 등 시청각 교육, 현장체험 학습)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통일단원의 교과 내용 중 일부를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내용과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과 시간 통일교육의 예시 : '통일 미래비전' 구상

2007 개정 교과서 통일단원의 내용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미래 비전에 관한 주제를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는 내용과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통일한국 전망-통일 한반도의 국토개발 청사진', '통일

이후 북한의 자원을 활용해 어떤 생산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 하라' 는 과제 제시 등과 같이 통일문제를 청소년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성 속에서 인식시켜 통일미래를 구상하게 하는 방안이다.

교과서에서의 '통일 미래비전'에 관한 구상은 “통일한국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 복지국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등 추상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되려면 통일 미래를 청소년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재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경제대국,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현재 분단 상황에서 이 같은 지리적 이점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다음 단계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이점 즉, 교통망 연결을 통한 육로 화물수송의 경제적 효과(한국에서 배로 유럽에 가는 경우는 한 달 이상 걸리지만 기차로 모스크바까지는 18일정도 소요)와 부산, 인천, 목포 등 도시들이 중계무역을 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파급효과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통일 후 기대되는 효과를 청소년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구체화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통일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의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구상하게 하는 것이다.

지정학적 특성상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교량적 역할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후 “통일 한반도의 국토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한다거나 북한의 자원현황을 소개한 후 “북한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보라”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 같은 구상을 가능하게 하도록 동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방식은 독일통일의 사례를 우리의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학습시킨 후 통일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 각 개인의 삶과 의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인식할 수 있는 통일 미래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그들 개인과 관련성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실례를 균형적으로 인식시킨 후 “남북통일 후 예상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구상해 보자”, “통일 10년 후의 나의 모습 스케치”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청소년들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삶에 연결지어 구상한 통일 미래비전에 대한 표현을 UCC로 제작하게 하거나 혹은 가상체험 역할극의 시나리오로 제작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서술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일한국 미래비전 구상

- 자유·인권·복지가 보장되는 국가(선진 민주 복지국가)
- 동북아의 허브역할로 강대국 위상

개인의 삶과 의식 반영

- 청소년들이 그리는 통일 미래비전, 통일 후 청소년들이 미래 모습(통일 1년 후, 10년 후 모습)
- 확대된 공간 속에 다양한 새로운 직업 선택의 기회창출
- 북한개발 프로젝트 구상

UCC, 역할극 묘사

## 2) 교과 외 시간의 통일교육 예시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시간 외에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이들의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한 또다른 통일교육은 봉사활동 혹은 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교과 시간 외의 통일교육은 ‘2009 미래형 교과과정’ 실시 이후 부족한 통일교과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한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부응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봉사활동 혹은 동아리 활동은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적응을 돕는 활동, 특히 포레집단인 북한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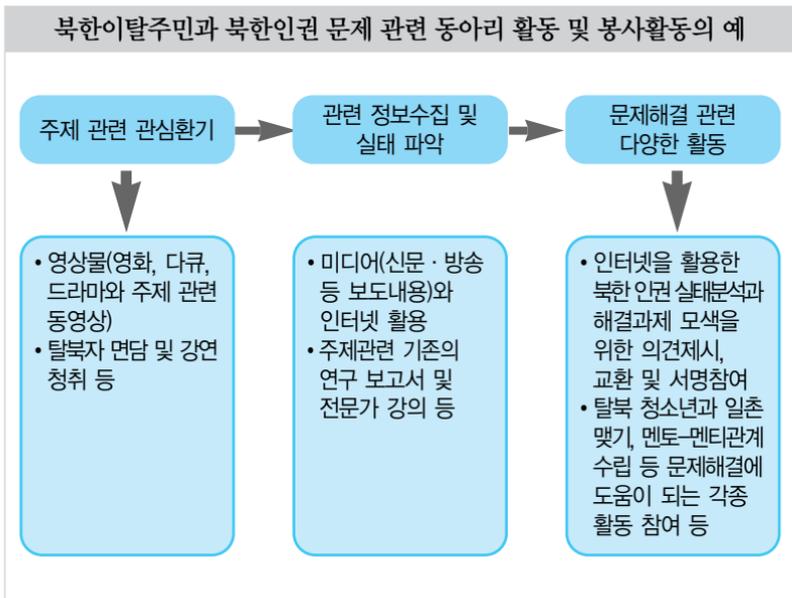
청소년들이 교과학습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이다. 청소년들은 “북한이탈 청소년과 일촌 맺기”, “북한이탈청소년과 일대일 멘토링 체제 도입”, “무의탁 노인·청소년과 가족 되기”, “북한인권 실태파악” 등의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구체적인 역할 정립 등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북한인권 문제는 2007 개정교과의 통일단원에서도 다루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 내 탈북자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북한이탈 주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주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방식과 수단 등을 활용하여 이들이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태 파악과 해결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디어·영상매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 된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 영상물인 다큐와 영화·드라마를 보고, 탈북자의 경험담을 청취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게 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제시·교환, 서명참여 등의 활동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문제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로서 다수의 국제비국가단체(NGO)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들 단체들과 접촉하여 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 단체들과 연계 속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될 수 있다.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통일 체험 교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 맺음말

## 맺음말

이 연구는 통일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통일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소년의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편성 속에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행해지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연유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이 연구는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제고를 위해 이들의 의식수준과 관심 등에 부합되는 통일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학교통일교육의 전담교과인 도덕 교과서의 통일단원의 내용 분석을 기초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재구성하였다.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통일문제가 그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식을 개발하여 그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 통일교육의 약화는 통일교육의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도 연유된다. 현재 통일 교육은 교과부와 통일부가 각기 주관하는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되고, 교과부, 교육청, 통일부 중심의 정부주도의 통일교육과 민간단체들의 통일교육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영역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체계적·효율적 통일교육 실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부, 통일부, 교육청 간의 협조체제와 지역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통일관, 각급학교 간 유기적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 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2004. 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 2)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 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 6)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 6)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 9)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2005. 9)
09. 남북한 IT용어 비교 (2005. 9)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 3)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 4)
12.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 9)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2006. 12)
14. 북·중 국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6. 12)
15. 알기 쉽게 풀어쓴 통일이야기 (2006. 12)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6. 12)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2006. 12)
18. 북한의 의료실태 (2006. 12)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2007. 12)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 12)
21. 북한의 체육실태 (2008. 7)
22.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 12)
23. 북한의 대남전략 (2010. 1)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10. 1)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010. 7)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6

###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전화 02)901-7161~7 /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편집/인쇄처 웃고문화사 전화 02)2267-3956

(비 매 품)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할 때, 평화롭고 풍요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